"축제할 때 아니야"… 신세계·롯데, 데이행사 막 내렸다

쓱데이·롯키데이 마케팅 중단
일부 상품 할인은 행사종료시까지
백화점 크리스마스 단장도 미뤄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등 국내 테마파크들이 이태원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에 따른 조치로 핼러윈 축제를 전면 중단했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모습. /뉴시스

국내 유통 공룡들이 2조원이 넘는 연례 최대 할인 행사 취소를 전격 결정했다.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압사 사고로 인한 조치다. 각 그룹측은 올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를 고려해 최대 가격 할인 행사를 기획했지만 국민애도기간의 정서에 더 비중을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10월 31일 신세계그룹은 오는 11일까지 예정된 '쓱데이' 등 대형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시작돼 올해 4년차를 맞은 쓱데이는 1년에 단 한번,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가 총출동해 온·오프라인 유통 역량을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 축제다.

SSG닷컴,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사이먼, 신세계라이브쇼핑, W컨셉, 이마트24,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푸드, 신세계까사, 조선호텔앤리조트, 신세계디에프, 신세계L&B, 신세계I&C, 신세계건설, 신세계센트럴시티 등 총 2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한다.

지난해 쓱데이는 9100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G마켓의 '빅스마일데이'와 만나 최대 2조원 이상 물량의 역대 최대 규모, 최대 혜택 행사로 펼쳐질 예정이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4월부터 '쓱데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력회사들과 사전 공동기획 상품을 준비하고 전 그룹사가 참여한 상품 컨벤션을 여는 등 고객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7개월 이상 쓱데이 준비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7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역대 최대 규모 쓱데이와 빅스마일데이 동시 행사를 준비했지만 이번 사고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며 "고객과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모든 업장에 대한 철저하고 세심한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대형 통합 마케팅 행사 '롯키데이' 역시 사실상 취소됐다. 롯키데이는 롯데백화점, 마트, 슈퍼 e커머스, 코리아세븐, 홈쇼핑, 하이마트, 멤버스 등 롯데 유통군이 선보이는 대형 통합 마케팅 행사로, 지난 27일부터 11월9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그룹 관계자는 "매장 내 진행되던 다양한 이벤트들은 전부 중지했고, 대외적으로 롯키데이를 알리는 마케팅, 홍보도 모두 진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롯키데이 할인 행사가 생필품 위주인데다 이미 할인 가격으로 판매중이라 상품 할인은 행사 종료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백화점 업계의 크리스마스 단장 행사도 미뤄지고 있다. 지난 달 27일부터 크리스마스 단장 행사를 시작한 현대백화점은 28일부터 더현대 서울에 매일 3회씩 5분간 6000개의 조명을 활용한 '라이트닝 쇼'를 진행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 관련 행사를 잠정 중단했다.

롯데백화점도 다음 달 3일부터 크리스마스 단장 행사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했다.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은 외벽을 가리는 천막을 치고 '11월 3일 오픈'이라는 문구로 기대감을 모았지만, 현재 해당 문구는 지워진 상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맘스터치, 태국 1호점 오픈… "亞·중동 개척"

방콕 중심가 '센트럴 라마 나인' 위치
시즈닝, 소스류 한국에서 직접 공수

맘스터치 태국 1호점 오프닝 세리머니를 진행 중인 이경민 맘스터치앤컴퍼니 전략기획본부장(왼쪽 두번째), 쵸 채쵸티삭(Chot Chetchotisak) 맘스터치 태국 대표(왼쪽 세번째) /맘스터치

국내 치킨·버거 브랜드 맘스터치가 태국 방콕에 1호점을 오픈하며 아세안과 중동 시장 개척에 나선다.

맘스터치는 방콕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센트럴 라마 나인'에 태국 1호점을 오픈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태국 RS 그룹의 오너가 이사회로 있는 맘스터치 태국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한지 6개월만이다. 해당 지역은 오피스 상권과 상업 지역, 호텔 등이 밀집된 지역이자 지하철역과 연결돼 일 평균 유동인구는 7만5000여명에 달한다.

맘스터치는 이번 태국 1호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태국 내 최대 번화가인 아이콘 시암 등 태국 중심 상권에 매장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주력 메뉴는 브랜드 시그니처 메뉴인 '싸이버거'와 K-콘텐츠의 영향으로 유명해진 '맘스양념치킨'이다. 태국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메뉴를 엄선했고, 제품의 맛을 결정 짓는 시즈닝, 소스류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맘스터치가 가진 맛과 품질을 그대로 구현하는데 힘썼다. 향후 메뉴와 서비스를 현지 시장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태국에서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방콕이 팬데믹의 충격을 이겨내고 아시아 대표 여행지의 위상을 회복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몰에 태국 1호점을 오픈하게 된 것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맘스터치와 맘스터치 태국 두 기업이 6개월 간 서울과 방콕을 오가며 야심 차게 준비한 만큼, 방콕 시민과 많은 여행객들에게 대한민국 대표 치킨버거인 '싸이버거'를 비롯해 맘스터치의 차별화된 매력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원그룹 스타키스트 신임대표에 엄재웅 선임

〈前 LG전자 전무〉

글로벌 생활산업기업 도약 추진

동원그룹은 미국 계열사 스타키스트(Starkist)의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엄재웅 전 LG전자 전무(사진)를 11월 1일부로 선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생활산업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됐다.

엄재웅 신임 대표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미군 장교 복무 후 화이자, GE, 머크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 전략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08년부터 LG전자에서 14년 동안 구매 조직을 이끌어왔다.

동원그룹은 엄 대표가 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글로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키스트의 지속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타키스트는 엄 대표를 차기 수장으로 발탁, 미국, 남미 등 현지 유통망을 바탕으로 제품군 확대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해 '미국 1위 참치 기업'에서 '종합식품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가운데,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영역에서 역량을 쌓아온 엄 대표가 스타키스트를 한 단계 발전시킬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전자랜드 4분기 주목 가전 '신발관리기' 선정

위생관리 가전에 대한 니즈 지속

31일 전자랜드가 2022년 4분기에 주목할 가전으로 '신발관리기'를 선정했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 간의 가전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신발관리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가량 증가했다.

전자랜드는 신발관리기 판매가 증가한 원인으로 야외 활동이 다시 활발해진 것을 꼽았다. 전자랜드의 조사 결과 신발관리기는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한 지난 여름부터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위생 민감도가 높아진 소비자들이 여름 휴가, 캠핑 등을 다시 즐기기 시작하면서 야외 환경에서 노출되는 각종 바이러스에 대비하게 됐고, 이에 생활공간과 의류뿐만 아니라 신발의 영역까지 위생 관리 니즈가 확대되어 신발관리기 판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주요 제조업체에서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신발관리기를 출시하고 있어 인테리어 가전으로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신발관리기는 출시 직후에는 크게 이목을 끌지 못했으나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며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팬데믹 시대를 겪은 소비자들의 위생관리 가전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위메프, 김동민 영입… 플랫폼 경쟁력 강화

〈토스증권 창립멤버〉

C레벨 주요 인사 추가

31일 위메프는 국내외 주요 기업에서 기획 전문가로 커리어를 쌓은 김동민 CPO(최고제품책임자·사진)를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8월 애플 본사 출신 이진호 박사가 CTO로 합류한 지 두 달여 만에 C레벨 주요 인사를 추가로 영입하며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김 CPO는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와 외국계 증권사 CLSA에서 근무 후 2017년 토스(비바리퍼블리카)에 합류해 토스의 초창기 빠른 성장에 기여했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까지 토스증권의 창립멤버이자 이사회 보드멤버로 활약했다. PO(Product Owner)로서 초보 투자자들이 쉽게 주식투자에 입문할 수 있는 서비스 전략을 마련, 토스증권은 서비스 시작 6개월 만에 이용자 400만명을 확보하며 글로벌 금융 서비스 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김동민 CPO는 이런 경험과 역량을 무기로 커머스 시장의 기존 문법과는 다른 서비스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CPO는 "기존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서비스 전략을 개발, 위메프 이용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플랫폼 경쟁력을 갖추는 데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